

근대 시기 일본 지리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

2024. 6. 21.

상명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초청강연회

박 소 영(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대 시기 일본 지리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

CONTENTS

- I. 근대 시기 일본의 교육과 교과서
- II. 지리교과서와 삽화
- III.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

I. 근대 시기 일본의 교육과 교과서



근대교육의 전개와 천황제 교육체제의 확립

- 1872년: 「학제」공포(公布), 근대적 학교제도의 도입, 중앙집권적 교육제도 정비
- 1880년: 제2차 교육령 *문부성과 부지사현령의 통괄감독 권한 강화
- 1886년: 학교령(諸學校令,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소학교령, 중학교령의 총칭)
*학교가 종류별로 규정된 최초의 법규(국민교육에 있어서 각 학교 역할이 명확해짐)
-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발포
- 1890년: 「교육칙어」발포 *천황의 통치하에서 국민의 정신과 도덕을 통일
- 1903년: 「소학교령」 개정, 소학교 교과서의 국정제도 도입
- 1908년: 6년제 소학교, 의무교육 제도 실시 (1943년까지 기본 틀로 유지)
- 1909년: 소학교 취학률 98%
- 1941년: 「국민학교령」, 국민과(国民科) 편성(수신, 국사(일본역사), 지리, 국어)
- 1943년: 「중등학교령」, 문부성 저작의 국정교과서 사용 의무화

I. 근대 시기 일본의 교육과 교과서



근대 시기 교과서의 영향력

“교과서가 일본인을 만들었다.”

<唐澤富太郎(1956) 『教科書の歴史－教科書と日本人の形成－』 創文社、序文>

“학교교육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교과서의 역할과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 모든 방면에서 교과서 내용이 (일본)국민의 교양과 의식, 가치관 형성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滋賀大学附属図書館(2006) 『近代日本の教科書のあゆみ』 サンライズ出版、序文>

패전 후 GHQ 점령에 따라 군국주의적·초국가주의적 사상과 관련된 교원의 추방과 교과서 회수·폐기가 추진됨. 특히 국민과(国民科) 중에서 수신, 국사(일본역사), 지리 수업을 정지시킴.

I. 근대 시기 일본의 교육과 교과서



국정기(國定期) 시기별 교과서의 특징

- ▷ 第1期 (1904-1909): 資本主義興盛期の比較的近代的教科書
- ▷ 第2期 (1910-1917): 家族國家觀に基づく帝國主義段階の教科書
- ▷ 第3期 (1918-1932):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教科書
- ▷ 第4期 (1933-1940): ファシズム強化の教科書
- ▷ 第5期 (1941-1945): 決戦体制下の軍事的教科書

<唐沢富太郎의 구분에 의함>

<일본 교과서 제도의 변천>

- 1872년: <학제> 공포: 자유발행제 → 신청제 → 허가제 → 검정제
- 1903년: 국정제(소학교 대상, 중등 이상은 검정제 유지)
- 1944년: 중등학교에 국정제 도입
- 1949년~현재: 검정제(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Ⅱ. 지리교과서와 삽화

근대 시기 지리교육과 교과서

▷ 국민은 자국을 인식할 수 있으며, 쇠국에 의해 유입되지 못했던 외국의 지식을 접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자각한 의식이 국민국가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소학교 국정 지리교과서는 근대 일본의 역사전개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변천해 왔으며, 청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까지 전쟁이 지리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준 점은 지대하다. <唐沢富太郎(1956)>

▷ '국민과(国民科)지리'는 일본의 국토·국세(国勢) 및 외국의 정세에 관해 그 대요를 터득함으로써 국토를 사랑하고 지키는 정신을 함양하며, 동아 및 세계에서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한다.

<「국민학교령시행규칙 제6조」(1941)>



Ⅱ. 지리교과서와 삽화

근대 시기 교수법에서의 도상(圖像)

▷ 서적의 삽화는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문장보다 오랫동안 뇌리에 남게 한다. (중략) 삽화는 아동의 흥미를 환기시키고 정조(情操)교육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삽화를 통해 아동에게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본문에 서술되지 않은 사실도 삽화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香曾我部 秀幸(2006), 「明治大正期の小学校教科書における挿画の考察」『教育専攻科紀要』10, 神戸親和女子大学, pp.43-55>

지리교과서 속의 삽화

▷ 지리교과서의 삽화는 당시로서는 세계를 향한 일종의 창, 공간의 진열장이며, 학습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시선을 결정하는 정치적 장소였다. 또한 교과서가 '볼거리'로 변용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지식의 정확한 전달 뿐만 아니라 본문에 서술되지 않은 사실도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한현정(2017), 「세계인식형성에 있어서 교과서 삽화의 역할」『비교교육연구』 27-3, p.215>

Ⅱ. 지리교과서와 삽화

지리교과서 속의 삽화

▷ 소학교 학생들에게 지리를 가르칠 때, 기억을 명확히 하고, 관찰을 정밀하게 하며, 발표를 명료하게 하고, 지리학의 요점에 도달하려면 삽화와 지도를 능숙하게 활용해야 한다.<高野松次郎、『尋常小学地理插画精説明』、東京寶文館、1913、p. 3>

▷ 어떤 교육 관계자는 새 국정교과서(2기 지리교과서)는 정말 교사를 울리는 교과서라며, 그 이유로 지리교과서 같은 경우 개정이전 교과서에 비해 삽화 수가 갑자기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중략) 설명서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다. 그것이 교사 스스로 촬영하고 수집한 것이라면 모를까, 제3자가 어느 곳의 무엇을 찍은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을 내놓고, 더욱이 설명도 없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교사에게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梶茂策、『国定地理教科書插画解説:附 研究法と教授法』、開発社、1912、p.239>

Ⅱ. 지리교과서와 삽화

선행연구

- 사회영, 김순전(2016), 「일제강점기 <지리>교과서 삽화 활용에 대한 고찰 -조선·일본지역 삽화를 중심으로-」 『일본연구』28
- 신수경(2009),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 삽화 연구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표현방식의 변형- 」 『미술사논단』29
- 한현정(2017), 「세계인식형성에 있어서 교과서 삽화의 역할: 일제 시대 간행된 초등 지리교과서의 인종·민족 삽화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27-3
- 韓炫精(2014)「教科書における帝国の風景 -戦前地理教科書の写真使用を中心に-」 『東京大学大学院教育研究科 基礎教育学研究室 研究室紀要』 40
- 砂川誠司(2014)「国定期国語教科書における写真教材の役割」 『愛知教育大学研究報告人文・社会科学編』 63
- 김선희(2018)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대한지리학회지』53-4
- 강인혜(2019) 「다민족 개척자: 만철 사진전문지 <만주그래프(満州グラフ)와 이에 표상된 조선인 부락」 『미술사학』37
- 毛利康秀(2020)「歴史イメージとしての絵葉書-研究の動向および社会的意味の再検討- 」 『日本大学文理学部情報科学研究所年次研究報告書』 20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소학교 및 중학교용 지리교과서 개정시기 및 주요 계기

구분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소 학 교	■ 1기 발행 (1903) ■ 2기 발행(1907-) ■ 6년제 의무교육 (1908) ■ 취학율 98% (1909)	■ 2기발행(-1910) ■ 3기발행 (1918-1919)		■ 4기발행 (1935-1936) ■ 5기발행 (1938-1939) ■ 교육심의회 설치 (1937)	■ 국민학교령 제정(1941) ■ 6기 발행(1943)
중 학 교	■ 중학교교수요목 제정(1902)	■ 중학교교수요목 개정(1911) ■ 중학교수/학생수 증가(1917-)	■ 중학교의 대중교육 기관화 (1920-)	■ 「중학교령실행 규칙」 개정(1932) ■ 중학교 교수요목 개정(1933)	■ 중등학교령 제정(1943)
주요 사건		■ 한일강제병합 (1910)		■ 만주사변(1931) ■ 중일전쟁(1937)	■ 태평양전쟁 (1941) ■ 패전(1945)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소학교 및 중학교용 분석대상 지리교과서

번호	서명	대표저자	발행자	발행연도	구분
1	小学地理 三	-	文部省	1903	小學校用
2	兒童用 尋常小学地理 卷二	-	文部省	1910	
3	兒童用 尋常小学地理書 卷二	-	文部省	1919	
4	尋常小学地理書 卷二	-	文部省	1936	
5	尋常小学地理書 卷二	-	文部省	1939	
6	初等科地理 上	-	文部省	1943	
7	最新外国地理教科書	岩崎重三	内田老鶴圃	1904	旧制 中学校用
8	修訂普通教育日本地理教科書	山崎直方	開成館	1912	
9	中学校用 新地理日本	小林房太郎	文学社	1917	
10	帝国新地理	地理教授同窓会	帝国書院	1926	
11	新制最近日本地理	三省堂編輯所	三省堂	1933	
12	現勢日本地理	石橋五郎	富山房	1938	
13	中等最近日本地理	三省堂編輯所	三省堂	1941	
14	中等地理 二	-	文部省	1944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지리 교과서 내 조선의 편제 및 목차 구성

▷ 韓(아시아주에 포함)

▷ 朝鮮地方(일본의 地方誌에 포함) “한일강제병합”

<교과서 목차 예시: 4기 소학교용 지리교과서>

目録	
第一 日本	一
第二 關東地方	八
第三 臺灣地方	二二
第四 中部地方	五〇
第五 近畿地方	七二
第六 中國地方	九二
第七 四國地方	一〇七
第八 九州地方	一二二
附録	一

目録	
第一 北海道地方	一
第二 樺太地方	一七
第三 臺灣地方	二二
第四 朝鮮地方	三八
第五 關東州	五二
第六 我が南洋群島	五八
第七 日本の總説	六八
第八 アジア洲	八七
第九 ヨーロッパ洲	一〇八
第十 アフリカ洲	一二九
第十一 北アメリカ洲	一四〇
第十二 南アメリカ洲	一五〇
第十三 大洋洲	一六〇
第十四 世界と日本	一六九
地球の表面	一七〇
附録	一

第四 朝鮮地方	
一 區域	三八
二 地勢	三八
三 氣候・産業	四四
四 交通	五〇
五 住民・都邑	五二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지리 교과서 내 조선의 편제 및 목차 구성

〈교과서 목차 예시: 중학교용 지리교과서 『現勢日本地理』, 1938〉



目次	
第一篇 序説	一
第二篇 地方誌	九
第一章 樺太地方	九
第二章 北海道地方	一六
第三章 奥羽地方	二二
第四章 關東地方	二八
第五章 中部地方	三六
第六章 近畿地方	四二
第七章 中國地方	四八
第八章 四國地方	五四
第九章 九州地方	六〇
第十章 臺灣地方	六六
第十一章 南洋群島	七二
附錄 郷土地理の研究	七八

目次	
第一篇 總論	一
第二章 朝鮮地方	九
第三章 地勢・氣候	一六
第四章 交通・商業	二二
第五章 住民・處誌	二八
第六章 交通及び商業	三六
第七章 政治	四二
第八章 經濟	四八
第九章 社會	五四
第十章 文化	六〇
第十一章 産業	六六
第十二章 交通・運輸	七二
第十三章 農業	七八
第十四章 林業	八四
第十五章 水産業	九〇
第十六章 工業	九六
第十七章 商業	一〇二
第十八章 交通・運輸	一〇八
第十九章 住民・處誌	一一四
第二十章 地勢・氣候	一二〇
第二十一章 交通・商業	一二六
第二十二章 住民・處誌	一三二
第二十三章 地勢・氣候	一三八
第二十四章 交通・商業	一四四
第二十五章 住民・處誌	一五〇
第二十六章 地勢・氣候	一五六
第二十七章 交通・商業	一六二
第二十八章 住民・處誌	一六八
第二十九章 地勢・氣候	一七四
第三十章 交通・商業	一八〇
第三十一章 住民・處誌	一八六
第三十二章 地勢・氣候	一九二
第三十三章 交通・商業	一九八
第三十四章 住民・處誌	二〇四
第三十五章 地勢・氣候	二一〇
第三十六章 交通・商業	二一六
第三十七章 住民・處誌	二二二
第三十八章 地勢・氣候	二二八
第三十九章 交通・商業	二三四
第四十章 住民・處誌	二四〇
第四十一章 地勢・氣候	二四六
第四十二章 交通・商業	二五二
第四十三章 住民・處誌	二五八
第四十四章 地勢・氣候	二六四
第四十五章 交通・商業	二七〇
第四十六章 住民・處誌	二七六
第四十七章 地勢・氣候	二八二
第四十八章 交通・商業	二八八
第四十九章 住民・處誌	二九四
第五十章 地勢・氣候	三〇〇
第五十一章 交通・商業	三〇六
第五十二章 住民・處誌	三一二
第五十三章 地勢・氣候	三一八
第五十四章 交通・商業	三二四
第五十五章 住民・處誌	三三〇
第五十六章 地勢・氣候	三三六
第五十七章 交通・商業	三四二
第五十八章 住民・處誌	三四八
第五十九章 地勢・氣候	三五四
第六十章 交通・商業	三六〇
第六十一章 住民・處誌	三六六
第六十二章 地勢・氣候	三七二
第六十三章 交通・商業	三七八
第六十四章 住民・處誌	三八四
第六十五章 地勢・氣候	三九〇
第六十六章 交通・商業	三九六
第六十七章 住民・處誌	四〇二
第六十八章 地勢・氣候	四〇八
第六十九章 交通・商業	四一四
第七十章 住民・處誌	四二〇
第七十一章 地勢・氣候	四二六
第七十二章 交通・商業	四三二
第七十三章 住民・處誌	四三八
第七十四章 地勢・氣候	四四四
第七十五章 交通・商業	四五〇
第七十六章 住民・處誌	四五六
第七十七章 地勢・氣候	四六二
第七十八章 交通・商業	四六八
第七十九章 住民・處誌	四七四
第八十章 地勢・氣候	四八〇
第八十一章 交通・商業	四八六
第八十二章 住民・處誌	四九二
第八十三章 地勢・氣候	四九八
第八十四章 交通・商業	五〇四
第八十五章 住民・處誌	五一〇
第八十六章 地勢・氣候	五一六
第八十七章 交通・商業	五二二
第八十八章 住民・處誌	五二八
第八十九章 地勢・氣候	五三四
第九十章 交通・商業	五四〇
第九十一章 住民・處誌	五四六
第九十二章 地勢・氣候	五五二
第九十三章 交通・商業	五五八
第九十四章 住民・處誌	五六四
第九十五章 地勢・氣候	五七〇
第九十六章 交通・商業	五七六
第九十七章 住民・處誌	五八二
第九十八章 地勢・氣候	五八八
第九十九章 交通・商業	五九四
第一百章 住民・處誌	六〇〇
終	六〇六

第二章 朝鮮地方	九
地勢・氣候	一六
交通・商業	二二
住民・處誌	二八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삽화의 분류

- ▷ **역사요소**: 강제병합 이전 한반도의 역사유물과 유적지
- ▷ **도시요소**: 일제에 의해 변모된 주요도시의 모습
- ▷ **경제요소**: 전국 각지의 특산물, 자원, 원료 등의 분포,
일본으로의 이출(移出)과 주요 항구의 모습,
산업의 기반시설
- ▷ **자연요소**: 한반도의 산, 강, 바다의 모습
- ▷ **문화요소**: 한국인의 외양, 생활상, 언어 등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소학교 및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한국관련 삽화의 분류와 게재 비율

분류(게재수)		구분	게재수	비율(%)	
				전체대비	
역사요소 (9)	서울(4)	소	0	0%	2.2%
		중	4	2.2%	
	경주(3)	소	0	0%	1.6%
		중	3	1.6%	
	평양(1)	소	0	0%	0.6%
		중	1	0.6%	
	개성(1)	소	0	0%	0.6%
		중	1	0.6%	
소계				5%	
도시요소 (40)	경성(19)	소	5	2.8%	10.6%
		중	14	7.8%	
	인천(9)	소	4	2.2%	5%
		중	5	2.8%	
	부산(10)	소	4	2.2%	5.6%
		중	6	3.4%	
	평양(2)	소	0	0%	1.1%
		중	2	1.1%	
소계				22.3%	
경제요소 (77)	생산물(19)	소	6	3.4%	10.7%
		중	13	7.3%	
	생산물 분포(11)	소	0	0%	6.1%
		중	11	6.1%	
	가공시설(21)	소	7	3.9%	11.7%
		중	14	7.8%	
	일본이출(16)	소	2	1.1%	8.9%
		중	14	7.8%	
	기반시설(10)	소	0	0%	5.6%
		중	10	5.6%	
소계				43%	

분류(게재수)		구분	게재수	비율(%)	
				전체대비	
자연요소 (27)	강(8)	소	1	0.6%	4.5%
		중	7	3.9%	
	산(16)	소	8	4.55%	9.1%
		중	8	4.55%	
	바다(3)	소	0	0%	1.6%
		중	3	1.6%	
소계				15.2%	
문화요소 (26)	한국인(4)	소	2	1.1%	2.2%
		중	2	1.1%	
	풍속(20)	소	5	2.8%	11.2%
		중	15	8.4%	
	언어(2)	소	0	0%	1.1%
		중	2	1.1%	
소계				14.5%	

- 높은 비율의 경제요소: 한반도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
- 도시요소 '경성': 일제 식민지배 이후 변화되는 도시의 모습에 주목
- 문화요소 '풍속', 자연요소 '산': 한국의 문화와 자연적 특징이 비교적 유의미한 학습 소재로 활용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역사 요소

역사요소(9)										
도시명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소①	소②	소③	증④	소④	소⑤	소⑥	
			증①	증②	증③		증⑤	증⑥	증⑦	증⑧
서울	남대문	소								
		증				●		●	●	
	덕수궁	소								
		증			●					
경주	불국사	소								
		증					●	●	●	
개성	남대문	소								
		증		●						
평양	대동문	소								
		증						●		

- '지리' 교과목: 역사 요소 삽화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중학교용 지리교과서: 남대문, 불국사 관련 삽화 게재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역사 요소



그림1. 경성 남대문(중⑦)



그림2. 남대문 부근의 어제와 오늘 (중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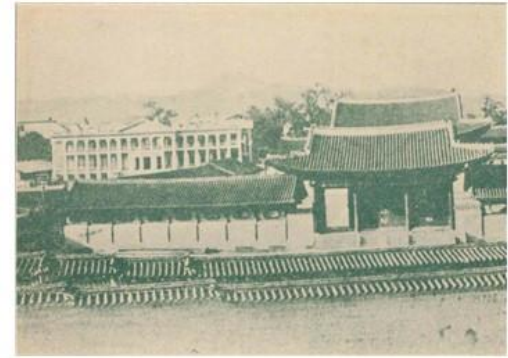


그림3. 경도 덕수궁(중③)



그림4. 경주 불국사(중⑦)



그림5. 평양부 대동문(중⑥)



그림6. 개성 남대문(중②)

- 그림1: 오랜 성문의 하나로 남겨졌으며 500년 전의 동양예술이 그림과 같이 엄존한다.
- 그림3: 이태왕 전하가 거처하는 곳
- 그림4: 불교미술의 명작이 많은 경주의 불국사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도시 요소

도시요소(40)																					
도시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도시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소①	소②	소③	중④	소④	소⑤	소⑥	소①				소②	소③	중④	소④	소⑤	소⑥	중⑦	중⑧
			중①	중②	중③		중⑤	중⑥	중⑦	중⑧				중①	중②		중③	중⑤	중⑥	중⑦	중⑧
경성	경성 시가	소									경성	경성 지도	소								
		중					★		●		경성	지도	중			●		●			
	경성 전경	소		●	●		●				인천	인천 항	소					★	★		
		중		●			●				인천	항	중		●	●		★	●		
	조선 총독부	소		●								부산	부산 전망	소		●					
		중		●				●				부산	전망	중		●		●			
	조선 신궁	소							●		부산	부산 항	소			●		●			
		중				●			●		부산	항	중	●		●			●		
	경성 대학	소										선차 연결	소					●			
		중				●						연결	중					●			
	경성역	소									평양	평양 시가	소								
		중							●		시가	중							●		●
	박문사	소									(★은 동일 주제 삽화가 해당 교과서에 2건이 게재되어 있음을 의미함.)										
		중							●												

- 경성: 경성 시가, 경성 전경, 조선총독부, 조선신사가 높은 비중으로 게재 (조선신사는 소학교 교과서에서는 1940년대 처음 등장함.)
- 부산, 인천: 항구 관련 삽화가 중심.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도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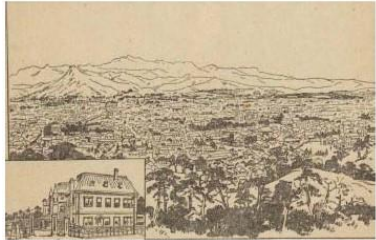


그림6. 경성 시가와 총독부(소②)



그림7. 경성의 전망(중⑤)



그림8. 경성 시가(중⑤)



그림9. 조선총독부(중②)



그림10. 조선총독부(중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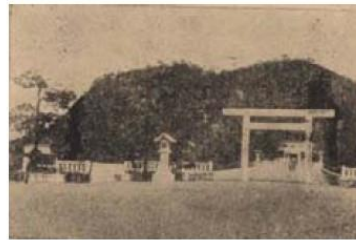


그림11. 조선신궁(소⑥)



그림12. 경성대학(중④)



그림13. 경성역(중⑦)



그림14. 박문사(중⑦)

- 그림7: 삼각형 모양으로 솟아 있는 북악산 아래에 총독청사가 엄연히 보인다.
- 그림8: 남대문통(通)의 광경으로 은행, 회사 등의 건물이 많다.
- 그림11: 경성시 남쪽에 위치한 언덕 위에 조선신궁을 모시고 있다.
- 그림13: 근대적인 대건축물로 반도의 주요 간선은 이곳에 모여, 많은 여행객들도 드나든다.
- 그림14: 이토 공의 유업을 기리는 기념건축으로 춘무산 박문사(博文寺)로 불리는 사원이다.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도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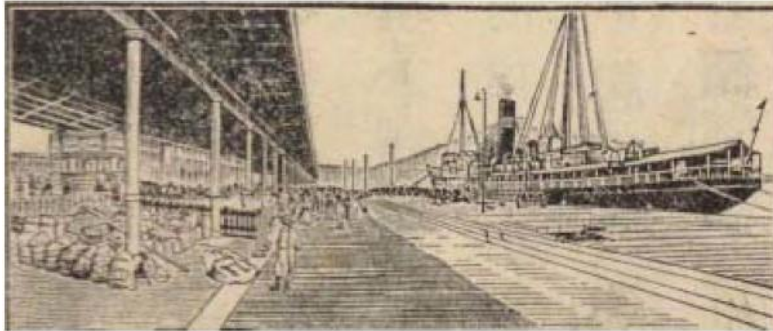


그림15. 부산항(소④)



그림16. 인천항(소④)



그림17. 인천항(중⑤)



그림18. 평양의 시가(중⑤)

- 그림17: 우측의 월미도와 연결된 방파제가 보이며 중앙에 있는 사도(沙島)와 연결되는 방파제가 보인다.
- 그림18: 아카시아 가로수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대화촌통(大和村通)으로 내지인의 점포가 많다.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경제 요소

경제요소(77)																																					
분류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분류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소①	소②	소③	소④	소⑤	소⑥		소①	소②	소③	소④	소⑤	소⑥				소①	소②	소③	소④	소⑤	소⑥		소①	소②	소③	소④	소⑤	소⑥	소①	소②	소③	소④	소⑤	소⑥
			중①	중②	중③	중④	중⑤	중⑥		중⑦	중⑧	중①	중②	중③	중④				중⑤	중⑥	중⑦	중⑧	중①	중②		중③	중④	중⑤	중⑥	중⑦	중⑧	중①	중②	중③	중④	중⑤	중⑥
생산물	인삼	소		●						●	●																										
	중		●						●	●																											
	명태	소								★																											
	중		●							●	●																										
	초									●																											
	중																																				
생산물	면화	소																																			
	중									●	●	●																									
	압록강 뗏목	소																																			
	중								●			●	●																								
	사금 채집	소																																			
	중																																				
생산물 분포	논 분포	소																																			
	중									●			●																								
	대두 분포	소																																			
	중									●			●																								
	면 분포	소																																			
	중									●			●																								
생산물 분포	소 분포	소																																			
	중																																				
	금은 분포	소																																			
	중																																				
	신의주 제재소	소				●				●	●																										
	중				●					●	●		●																								
가공 시설	검이포 제철소	소								●	●																										
	중									●	●																										
	운산 광산	소																																			
	중																																				
	목포 조면공장	소																																			
	중																																				
가공 시설	김 양식장	소																																			
	중																																				
	군산 정미소	소																																			
	중																																				
	개성 인삼건조	소																																			
	중																																				
가공 시설	삼림 관리	소																																			
	중																																				
	염전	소																																			
	중																																				
	군산항 쌀 수출	소																																			
	중																																				
일본 수출과 주요 항구	목포 면 집적	소																																			
	중																																				
	상삼봉역 대두집적	소																																			
	중																																				
	대구 사과수출	소																																			
	중																																				
일본 수출과 주요 항구	누에고치 수출	소																																			
	중																																				
	청진항 수출	소																																			
	중																																				
	원산항	소																																			
	중																																				
일본 수출과 주요 항구	신탄시	소																																			
	중																																				
	저수지	소																																			
	중																																				
	수원근업 모범장	소																																			
	중																																				
기반 시설	압록강 철교	소																																			
	중																																				
	조선철도 (지도)	소																																			
	중																																				

■ 소학교용 교과서: 생산물과 가공시설에 관한 삽화가 중심

■ 중학교용 교과서: 생산물의 분포, 일본으로의 수출, 기반시설 관련 삽화

■ 이른 시기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삽화: 인삼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경제 요소

■ 상품작물, 수산, 광산, 목재, 과수 등 광범위한 자원의 수탈



인삼밭과 인삼의 잎과 뿌리 (중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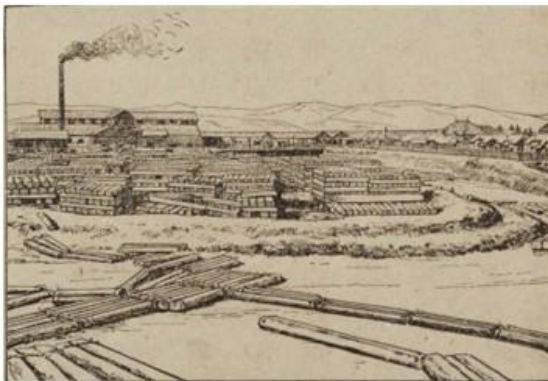
명태어(중④)



대구에서의 사과 이출(중⑦)



운산광산 (중④)



신의주 제재소(소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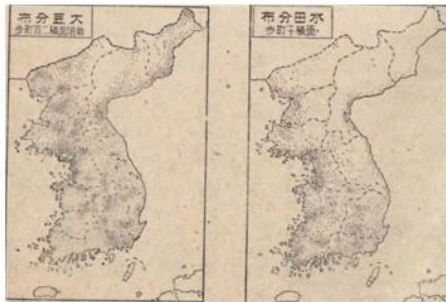


청진항의 화물 집적(중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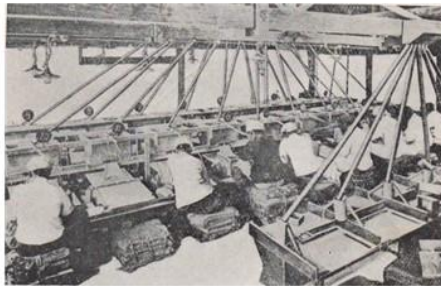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경제 요소

- 생산물, 가공시설, 일본으로의 수출에 관한 삽화는 연관시켜 제시하는 경향 (1930년대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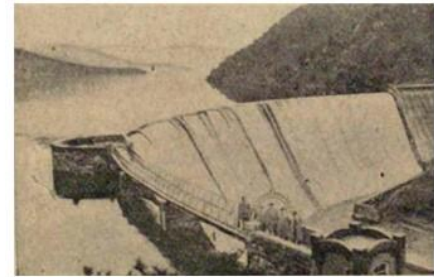
수전, 대두 분포도(중⑤)



정미소(중⑦)



군산항에서의 쌀 수출(소⑤)



저수지 (중⑥)



호남평야의 면화밭(중⑥)



목포의 제면(製綿)공장(소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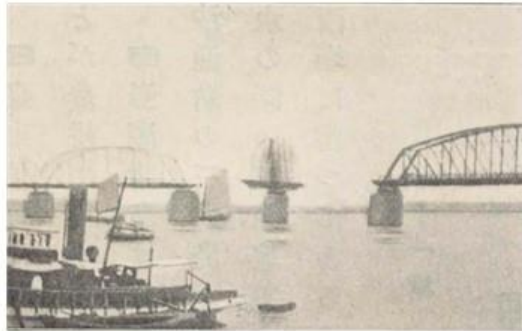


목포항의 면화 수출(중⑥)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경제 요소

- 철도: 일본과 대륙을 잇는 중요한 매개로서 한반도 자원과 물자를 일본 내지로 수송하기 위한 전략 수단



압록강 철교(중⑥)

- 압록강 철교: 1911.11 개통
- 한반도와 만주의 철도를 동일 궤도로 접속하기 위한 가교 역할



조선의 철도(중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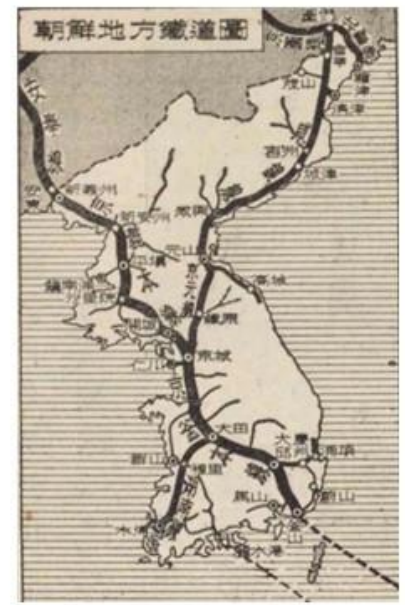
<1912년 발행 교과서>



조선의 철도(중⑤)

<1933년 발행 교과서>

- 경원선, 함경선 개설
- 해상으로 부산과 일본 연결



조선지방 철도지도(중⑥)

<1938년 발행 교과서>

- 도문선 개설
- 해상으로 부산, 여수와 일본 연결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자연 요소

자연요소(27)																						
분류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분류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소①	소②	소③	중④	소④	소⑤	소⑥	소①				소②	소③	중④	소④	소⑤	소⑥			
			중①	중②	중③		중⑤	중⑥	중⑦	중⑧				중①	중②		중③	중⑤	중⑥	중⑦	중⑧	
강	압록강 상류	소		●							산	금강산	소			●		●	●		●	
		중		●									중			●			●	●		
	낙동강 하류	소										평양 모란대	소					●	●			
		중		●									중			●			●			
	대동강 하류	소											백두산	소					●	●		
		중		●					●					중					●			
두만강	소									장백산맥 관모산	소											
	중				●						중								●			
결빙의 압록강	소										해금강	소										
	중				●							중							●	●		
금강	소									바다	다도해 경관	소										
	중							●			중							●				

- 자연 요소: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 강, 바다, 명승지
- 금강산: 일제가 한반도에 대한 관광정책 시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관광공간으로 인식
- 평양 모란대: 배산임수의 요충지, 청일전쟁 당시 전략지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자연 요소



그림34. 백두산(소⑤)



그림35. 금강산(중⑦)



그림36. 평양모란대(중⑤)



그림37. 압록강의 상류(소②)



그림38. 日露支 境界의 두만강(중④)



그림39. 다도해의 경관(중⑥)

- 그림36: 일만이천봉으로 불리는 금강산은 진기하고 ... 산수미(山水美)의 절정을 이루는 이 산에 대해서 시, 문장, 회화로 일부분이라도 제대로 옮겨 놓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교과서 삽화 해설서 高橋勝(1939)『改訂小学地理書解説(尋六)』, 明治図書, p.112.>
- 그림33: 백두산은 압록강, 두만강과 만주의 송화강과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 그림38: 日露支 境界의 두만강(*3국간의 정치적 경계가 자연적 요소인 강에 의해 구분)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문화 요소

문화요소(28)																					
분류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분류	내용	구분	1900	1910		1920	1930		1940	
			소①	소②	소③	소④	소⑤	소⑥		소①				소②	소③	소④	소⑤	소⑥			
			중①	중②	중③		중④	중⑤	중⑥	중⑦				중⑧	중①		중②	중③	중④	중⑤	중⑥
민족	한국인	소	●	●							풍속	조선	소					●			
		중		●	●							어선	중								
풍속	가옥	소										소	소								
		중								●		거래	중					●	●		
	지계	소										얼음	소								
		중				●						낚시	중				●		●		
	빨래	소										얼음	소								
		중				●	●		●			채취	중					●			
	대구	소			●		●	●		●	언어	한글	소								
		중				●	●	●	●				중		●			●			
농부의 관개	소																				
	중			●																	

- 강제병합 이전 및 직후 발행 교과서: 한국인의 외양과 고유의상 삽화, 한글
- 점차적으로 한국인의 가옥, 지계를 진 남성, 개울에서 빨래하는 여성, 대구의 정기시장, 얼음낚시 등 독특한 풍속에 관한 삽화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문화 요소



<한국인과 상점, 소학교용, 1903>

<해설서 高野松次郎(1913) 『尋常小学地理挿画精説』
東京寶文館>

- 장옷을 입은 사람은 기혼 여성, 장옷은 일본 고대 시기의 기누가즈키(衣被)와 유사
- 음용수가 부족하여 인부들로부터 물을 사야만 함.
- 상점의 수준이 유치하며, 대도시에서는 가게가 있지만, 소도시와 촌락에서는 물물교환 시대에서 조금 진전된 형태로 상업이 이루어짐.



<조선 상류인사의 가정, 중학교용, 1912 >

<교과서 서술>

- 반도 주민의 대부분은 조선민족으로 용모는 야마토 민족과 매우 흡사. 체격과 기질은 반도의 남과 북에 따라 다르며 북남·남녀라고 함. 북쪽사람들은 침착하고 완고하지만 남쪽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가벼우며 교묘하고 즐거롭다.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문화 요소



<조선인의 풍속, 중학교용, 1933 >



<조선여인과 세탁, 중학교용, 1926 >



<조선인 풍속의 하나>

- 정형화된 조선의 로컬컬러: 백의(白衣), 온돌, 지게꾼, 세탁, 민둥산, 기생
- '조선풍토류' 관련 서적들에서 중첩되고 반복되는 소재 <김보현(2015),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풍토'의 발견과 단카(短歌) 속의 '조선풍토」 『인문연구』72>
- 전근대적 풍속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문명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기제로 활용

Ⅲ. 삽화에 나타난 조선의 표상(1900-1940년대 소학교·중학교 지리교과서)

■ 소학교와 중학교용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시대별 삽화의 주제와 변화

- 강제병합 직후: 조선이 새로운 식민지로 편입되었다는 인식과 정보 제공
 - 조선총독부의 설치, 조선의 역사성이 지워진 제국의 새로운 도시로서 경성의 존재 강조
 - 전근대적 사회상 부각, 강제병합 이전부터 경영권을 갖고 있던 조선의 자원 제시 등
- 1920-1930년대: 본격적으로 식민통치 이데올로기가 내재된 삽화의 등장
 - 경주와 평양은 조선의 남부와 북부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이자 역사적 공간으로 인식
→ 한국 역사의 타율성과 제국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표상
 - 전 분야 산업을 아우르며 생산, 가공, 일본으로의 수출 관련 삽화를 통해 수탈의 당위성과 일본학생들에게 식민지 경영을 통해 증강되는 부력(富力)을 인지하도록 함.
 - 로컬컬러화 된 조선 서민의 생활상과 풍속: 전근대적 이미지의 확대·재생산, 문명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타자화
 - 한반도 북단의 두만강과 백두산은 만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 한반도 철도노선의 제시를 통해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표상
- 1930년대 중후반-패전: (이전 교과서들의 표상이 이어짐.) 조선신사 삽화를 중심으로 내선일체의 강화, 태평양 전쟁에서의 결전을 준비하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
- 삽화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와는 달리 삽화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 삽화해설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삽화의 의도된 목적성이 명확해지기도 함.

감사합니다.